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olicy Future Realization Gaps on Life satisfaction among Youth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김 지 영**
Kim, Ji Young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경로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청년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대다수 청년유입 및 정책 만족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인지하는 정책 지원의 중요도 대비 충족도가 삶의 만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개인의 정치적 자기확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제한적이었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청년 삶 실태조사(2024)」 자료를 활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커질수록 삶의 만족이 저하되는 반면 내적 정치효능감은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는 정치적 이해와

* 이 논문은 2024년도 성균관대학교 SKKU President Fellowship 교내 연수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및 경기연구원 인구사회연구실 초빙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6. 2. 12. 심사기간: 2026. 2. 12. ~ 2026. 3. 30. 게재확정일: 2026. 3. 30.

참여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개인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과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와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은 부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수준이 낮을 때,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격차가 심화 될수록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삶의 만족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지닌 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이행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청년 의견 반영과 피드백 과정을 제도적으로 가시화하는 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청년, 삶의 만족,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 내적 정치효능감, 조절효과분석

This study investigates how youth-perceived gaps between the importance and fulfillment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 conceptualized as policy future realization gaps —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n this relationship. While existing research on youth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youth influx and policy satisfaction, empirical inquiry into how the discrepancy between perceived policy importance and actual fulfillment shapes life satisfaction — and how this effect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s' political self-confidence — has remained limited.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conducted a moderat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Youth Life Survey(2024)」.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arger policy future realization gap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ife satisfaction among youth, suggesting that when normative expectations that public policies will improve living conditions go unmet, overall life satisfaction tends to decline. Second, internal political efficacy exerted a positive main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dicating that individuals' confidence in their capacity to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politics functions as a psychological resource that shapes how they interpret their lives and strengthens their perceived sense of control over the future. Third, internal political efficacy demonstrate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uture realization gaps and life satisfaction. Specifically, when gaps were low, youth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maintained comparatively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However, as gaps widened, the decline in life satisfaction was markedly steeper among those with high internal political efficacy. This pattern suggests that in policy 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substantial unmet expectations, heightened internal political efficacy may paradoxically amplify perceptions of loss and relative

deprivation. Collectively,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move beyo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youth policy toward designs that minimize the gap between expected and delivered support. Therefore, by institutionally guaranteeing youth participation and establishing a policy feedback mechanism, a virtuous cycle of participation and policy responsiveness must be fostered.

□ Keywords: Youth, Life satisfaction, Policy future realization gaps, Internal political efficacy, Moderating effect

I. 서론

최근 들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청년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청년’을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임태경, 2023: 149).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마을 사업’ 등을 통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다(박진경·김도형, 2020: 99). 이처럼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면,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적 맥락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청년 거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청년들이 직면한 여러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공유한다. 오늘날 청년들이 현실에서 직면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김영미, 2018; 김재우, 2018; 변금선·김기현, 2019; 오세일 외, 2019; 최아영, 2022; 정지윤·박지원, 2025) 이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주거문제, 일자리 및 고용문제, 복지 문제 등의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차원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한다. 이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 개입 및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관련하여 김영미(2018) 연구에 따르면 청년 응답자 가운데 약 72.1%가 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응답하여 청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공적 영역의 책무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의 「2019 청년세대 및 청년 복지정책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현재 청년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필요성에 대해 20대 응답자의 약 8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년재단의 「청년정책·이슈 토크아보기」 조사 결과에서는 청년 응답자의 약 73.1%가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 정책이 청년들의 삶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 가운데 약 40점대 후반에서 50점대 초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과 별개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들에게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체감은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이 인식하는 미래 실현 조건 가운데 하나로서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충족 격차가 삶의 만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게 있어 정책의 충족이 미

진한 경우 이들의 삶의 기회와 경로가 구조적으로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영역인 주거,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은 모두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과 기회의 구조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정책은 청년들이 현재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 경로를 계획하고 나아가는데 주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의 정책 지원에 대한 충족감이 확보되는 방향은 개인 차원에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정책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단순히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치적 행위자로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수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류태건, 2011). 즉 스스로가 정부 정책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삶의 만족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He et al., 2022; 정지윤·박지원, 2025). 특히 오늘날 청년들은 생애주기적으로 다양한 정부의 정책을 필요로 하고 이를 삶에서 수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청년들이 스스로에 대해 정치적 주체성을 가지고 정책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이들의 삶을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의 청년층의 유입 및 유출 요인에 대한 정량적 연구(김유현, 2021; 김민석·강민규, 2023)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물론 청년층의 양적 유입은 오늘날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청년 유입 정책의 성과 역시 단기적 유입 규모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삶의 만족이 뒷받침될 때 정책의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책 지원 충족 격차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며 그 경로에서 개인의 정치적 역량 인식이 어떤 조건에서 완충 또는 증폭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청년에 대한 연구의 설명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청년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해당 경로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은 조절 역할을 하는가?’ 해당 질문을 탐색함으로써 청년정책 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동시에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만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의 삶의 만족과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되며 일상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단발적인 정서와는 구분되는 보다 안정적이고 다차원적인 주관적 웰빙으로 이해된다(Diener et al., 1985). 삶의 만족은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설정한 기대와 목표가 실제 삶의 조건 및 성취와 어느 정도 합치하는지에 대한 인식적 판단을 주 내용으로 한다(오세일 외, 2019). 아울러 연구분야 및 학자들마다 삶의 만족을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행복(happiness),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권준이·은재호, 2021).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정의에 따르면 삶의 질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욕구에 대한 충족 및 인간으로서의 잠재력과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유'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주관적 안녕은 삶의 만족을 포괄하는 인지적 측면과 정서 상태라는 정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Diener et al., 1985) 행복 역시 주관적 안녕과 유사하게 활용된다(권준이·은재호, 2021). 이상 살펴본 다차원적인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생애의 전환점에 선 청년에게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학업, 노동시장 진입, 주거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삶의 과제가 집중됨에 따라 개인의 생애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김민수, 2023). 또한 해당 시기는 사회적 관계, 직장 등과 관련된 목표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삶의 만족에 상당한 심리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Bradley & Corwyn, 2004: 385).

한편 청년세대의 낮은 삶의 만족은 개인적 차원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탈, 독립시기의 지연, 정치적 무력감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김보름·김민수, 2022). 이런 점에서 청년들의 삶의 만족을 탐색하는 것은 단순히 세대 연구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개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을 탐색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안녕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통합성과 포용성 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정책적 함의를 지닌 개념임을 강조한다(강시운·한창근, 2018; 김재우, 2018; 변금선·김기현, 2019; 김보름·김민수, 2022; 최아영, 2022; 정지윤·박지원, 2025).

그렇다면 무엇이 청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중 불일치 이론(multiple discrepancies theory)에 따르면 삶의 만족은 다양한 조건과 격차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Michalos(1985: 349-350)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은 개인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바, 기대하는 바 등 다양한 준거 사이의 인지된 격차들의 함수로 발현된다. Bradley & Corwyn(2004)의 연구 역시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생활조건에서 비롯된 평가라기 보다는 현재의 삶이 개인이 내면화한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라고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다중 불일치 이론에 근거하면 삶의 만족은 객관적 생활조건 그 자체로 이해되기 보다는 개인이 내면화한 준거에서 인지되는 불일치의 크기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관련해서 최근 국내에서는 ‘청년의 미래 실현 조건 격차’를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이선(2024: 13) 및 최윤희 외(2025: 451) 연구에 따르면 미래 실현 조건 격차란 개인이 지향하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현재 확보된 조건 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 같은 격차는 실증적으로 확인되는바 국가데이터처의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이 ‘ 스스로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점수는 10점 만점 기준 2022년 5.2점에서 2024년 7.6점으로 상승하였다.¹⁾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청년들이 단순히 미래를 계획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구조적 문제는 그들의 생애주기적 과업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이는 그들의 미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깊게 연관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급등한 주택가격과 전월세 불안정으로 인해 자산 형성에 대한 불안감은 독립, 결혼, 출산 등 미래 가구형성 관련 선택지를 제약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화되는 고용 불안정성과 고용 미스매치는 청년의 일자리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일부 청년의 경우 구직 단념이나 경제활동 비참여, 이른바 ‘쉬었음’ 상태로의 이행과도 맞물려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청년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요청된다(김민수, 2023). 따라서 청년의 삶의 만족은 다양한 격차 요인 중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청년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지원 수준 대비 현행 정책의 충족도 간 차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1) 국가데이터처. 「청년 삶의 질 2025」 (https://mods.go.kr/board.es?mid=a90106000000&bid=12316&act=view&list_no=442459&tag=&nPage=1&ref_bid=)

2. 내적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이란 ‘개인이 행사하는 정치적 행위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혹은 미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정의된다(Campbell et al., 1954: 187; Sohl, 2014: 78-79; Reichert, 2016: 222; 류태진, 2011). 이는 곧 정치적 행동에서의 의사 표현과 참여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연결된다(Arens & Watermann, 2017: 3-6). 정의에 기반할 때 정치효능감은 주관적인 인식으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력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일개념이었던 정치효능감은 내적-외적 정치효능감으로 구분 및 연구되고 있다(권준이·은재호, 2021).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반면 내적 정치효능감은 개인이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자기 확신에 관한 신념을 의미한다(Craig et al., 1990). 즉 내적 정치효능감은 개인에 초점을 두어 스스로가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 행위에 유능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주관적 자기역량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개인의 심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보다 주목되는 점은 정치효능감이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효능감은 중요한 시민성의 자질로 파악되는데(Sohl, 2014: 81)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교육시스템이나 가정 등의 관계를 통해 학습되어 정치적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역량을 축적하게 된다(Arens & Watermann, 2017: 4-5). Sohl(2014: 86-87)의 논의에 따르면 정치효능감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로 작동하여 관심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기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정치적-사회적 결정 과정에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검증하고 체감하는 시기이다. 이 점에서 청년들은 자신을 정치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동일한 정책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적 정치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서 비롯된 개념이며,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 기초하면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을 증진한다(Bradley & Corwyn, 2004; Suldo & Huebner, 2006).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낄 때 체감되는 인지적-정서적 긍정적 평가가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 정치효능감은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영향력 행사 능력에 관한 자기평가 영역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스스로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이 정책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차별화된다(류태건, 2011). 또한 이러한 주관적 인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동의와 순응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기에(홍상우 외, 2023),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효능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는 정부 정책을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자신의 삶의 기회 구조와 직결된 자원으로 인식한다(김영미, 2018; 변금선·김기현, 2019; 윤민재·임정재, 2023). 더욱이 김동욱·서정욱(2021)은 오늘날 청년정책이 청년 삶의 실질적 해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청년정책 영역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청년들이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체감하는지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은 주요하게 기능한다. 즉 청년들이 '기대했던 지원'과 '실제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나타날 때 내적 정치효능감은 이러한 정책적 격차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년은 정책 실패를 불가피한 현실적 제약을 넘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Valentino et al., 2009). 따라서 청년정책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청년들이 동일한 정책적 조건을 왜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강한 불신과 불만족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미래 실현 조건 격차에 대한 연구 가운데 최윤희 외(2025)의 연구에서는 미래 실현 조건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의 조건,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격차 인식이 클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고 이때 사회적 관계망이 완충작용을 보인다고 규명하였다. 특히 정부의 정책 지원의 경우 청년들이 정부 지원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지원이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청년들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와 실망을 동반하며, 이러한 정서적 부담이 우울로 이어짐을 밝혔다. 아울러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을 탐색한 김이선(2024) 연구에서는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추상적인 인식이 아닌 청년이 이동을 자신의 삶 전반을 바꾸는 생애 행위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 지원 격차가 이주 의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도출된 바, 이러한 현상을 청년이 환경을 재배치하고 기회를 탐색하려는 전략적 행위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김민수(2023)의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정책을 경험한 청년들과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취업성공패키지 수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는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책효과가 발현되어야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곧 청년들이 해당 정책을 통해 취업 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험에서 이러한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이 청년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이 수반될 때 비로소 삶의 만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연구를 종합하면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인식이 단순한 인지 수준을 넘어 청년의 정서와 행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미래 실현 조건을 다차원적으로 포괄하면서도, 청년문제와 공공정책 간 긴밀한 연결성을 전면에 두고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오늘날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 자원이 아니라 삶의 경로를 선택 및 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Bradley & Corwyn, 2004; 김민수, 2023).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은 청년이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 가운데 공적 개입을 통해 조정 가능한 핵심 조건이며, 청년이 인식하는 정책 지원에 대한 중요도 대비 현재 충족 수준 간 간극은 곧 미래 실현 조건 격차를 구성하는 주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청년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 것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실현 조건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정책 지원' 차원에 초점을 두어, 청년이 인식하는 정책 지원의 중요도 대비 체감 충족도의 격차가 삶의 만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1: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높을수록 청년들의 삶의 만족은 감소할 것이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와 정치효능감 등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일부 연구들에 근거하면 그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정치효능감은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He et al., 2022; 이성심, 2023; 정지윤·박지원, 2025). 관련하여 He et al.(2022: 16)에 따르면 정치적 가치를 표현하는 행위를 통해 획득한 자율성은 전반적인 행복과 삶의 만족의 제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으로는 내적 정치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확인된다. 권준이·은재호(2021)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들의 의견과 의사가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정치효능감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은 Whiteley et al.(2010: 736)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심리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와도 연관되며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면 정책이 작동되는 과정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을 결정짓는데 있어 그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청년세대의 경우 미래 설계와 사회 진입의 과도기에 위치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내적 정치효능감에 의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Valentino et al.(2009)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도전이나 갈등 등의 상황에서 내적 효능감은 확신과 통제력을 높여 분노 발생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Rico et al.(2020) 연구에 따르면 개별적 감정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스스로가 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면 분노가 발생한다고 밝혔다(Rico et al., 2020: 801-802).

한편 Michalos(1985)은 삶의 만족이 개인의 다양한 준거와 실제 삶의 조건 사이에서 인지되는 격차로부터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현실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좌절과 불만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내적 정치효능감은 자신을 정책 혜택의 정당한 수혜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권리의식을 증폭시키며(Valentino et al., 2009; 정지윤·박지원, 2025), 그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격차는 부당한 처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삶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Valentino et al.(200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스스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자각할 때 비로소 결핍이 적극적인 불만과 분노로 전환된다는 논리와도 결을 같이한다. 요컨대,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년층은 정책적 지원의 격차를 불가피한 현실적 제약으로 체념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미충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를 더욱 낮추는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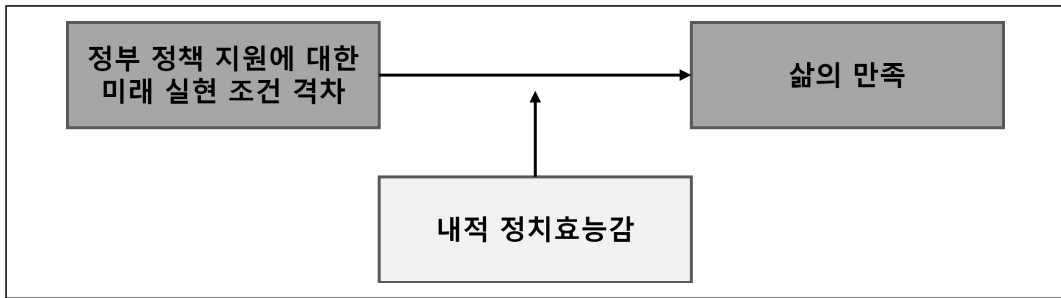
연구 가설2: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청년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청년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 그 경로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 역할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 및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구자료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이다. 해당 자료는 청년층의 삶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거, 고용, 교육,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 및 인식 등을 측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는 전국 단위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의 경우 총 15,098명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9~24세가 5,468명, 25~29세가 5,105명, 30~34세가 4,525명으로 비교적 고르게 구성되어 있다. 주요 문항은 청년의 삶의 만족도, 경제활동 상태, 정책 인지도,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및 삶의 질 등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 단위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통해 청년 개인의 주관적 삶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 그리고 내적 정치효능감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문항과 이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이다. 이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정지윤·박지원, 2025)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로 측정되

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독립변수인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김이선, 2024; 최윤희 외, 2025)에서 제시한 ‘미래 실현 조건’ 개념을 차용하여,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현 수준 평가(충족도) 간의 차이로 이를 조작화하였다.

〈표 1〉 활용문항 및 척도

분류	내용	측정	척도	
종속 변수	삶의 만족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 매우 만족한다(= 11)	리커트
독립 변수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의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매우 중요하다(= 4)	리커트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의 충족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 1)~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4)	
조절 변수	내적 정치효능감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	리커트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제 변수	성별		남성(= 1), 여성(= 0)	더미
	학력		고졸 미만(= 1)	리커트
			고졸 이상(= 2)	
			대졸 이상(= 3)	
	청년 연간 개인소득		500만원 미만(=1)	리커트
			500~1,000만원 미만(= 2)	
			1,000~2,000만원 미만(= 3)	
			2,000~3,000만원 미만(= 4)	
			3,000~4,000만원 미만(= 5)	
			4,000~5,000만원 미만(= 6)	
			5,000~6,000만원 미만(= 7)	
			6,000~7,000만원 미만(= 8)	
			7,000~8,000만원 미만(= 9)	
			8,000~9,000만원 미만(= 10)	
			9,000~10,000만원 미만(= 11)	
10,000만원 이상(= 12)				
가구원 수		1인(= 1), 2인(= 2), 3인(= 3), 4인(= 4), 5인 이상(= 5)	리커트	
혼인여부		미혼(= 1), 그 외(= 0)	더미	
주관적 건강인식	평소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매우 나쁨(= 1) ~ 매우 좋음(= 5)	리커트	
지역		수도권(= 1), 비수도권(= 0)	더미	

중요도의 경우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접근하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중요하지 않다(2점)', '중요하다(3점)', '매우 중요하다(4점)' 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충족도는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앞서 중요도와 동일하게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1점)', '갖추고 있지 않다(2점)', '갖추고 있다(3점)',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4점)' 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²⁾ 한편 최윤희 외(2025)의 연구에서는 격차 점수가 음수인 경우 즉, 충족도가 중요도를 상회하는 경우를 '제약이 없는 상태'로 간주하여 0으로 재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역시 정책 지원에 대한 미충족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에 음수값으로 나타나는 충족 초과 상태를 정책 지원 부족과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해석하는 데에는 개념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음수값을 0으로 재코딩하여 변수의 해석 일관성과 개념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조절변수인 내적 정치효능감은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의 두 문항 평균값으로 지수를 구성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각 항목의 척도는 공통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문항 간 상관은 $r=0.730(p<.001)$ 으로 나타났고, 내적일관성 신뢰(cronbach's α)는 0.844로 확인되어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Bradley & Corwyn, 2004; 고헌용·고명철, 2017; 강시운·한창근, 2018; 오세일 외, 2019; 김보름·김민수, 2022; 김민수, 2023; 이성심, 2023; 정지윤·박지원, 2025)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들로서 성별, 학력, 청년 연간 개인소득, 가구원 수, 혼인여부, 주관적 건강인식, 지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 차이 점수 방식을 활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핵심 개념이 청년들이 정부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실제 정책 지원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사이의 격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중요도 또는 충족도 각각의 수준이 아니라, 두 인식 간의 상대적 차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김이선, 2024; 최윤희 외, 2025)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더불어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49.2%)과 여성(50.8%)이 균형 있게 분포하였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이 56.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집단에 해당한다. 청년 연간 개인소득은 3,000~4,000만원 미만이 약 27.61%로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구원 수는 1인(30.16%)과 3인(29.67%)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혼인 상태는 미혼이 85.0%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기혼 및 기타는 15.0%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분포에 따르면 비수도권 거주 응답자는 66.69%, 수도권 거주 응답자는 33.31%로 확인되었다.

<표 2> 기초통계분석 결과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성	7,426	49.2
	여성	7,672	50.8
학력	고졸 미만	101	0.67
	고졸 이상	6,081	40.28
	대졸 이상	8,916	59.05
청년 연간 개인소득	500만원 미만	2,980	19.74
	500~1,000만원 미만	1,074	7.11
	1,000~2,000만원 미만	1,689	11.19
	2,000~3,000만원 미만	2,453	16.25
	3,000~4,000만원 미만	4,169	27.61
	4,000~5,000만원 미만	1,540	10.2
	5,000~6,000만원 미만	533	3.53
	6,000~7,000만원 미만	337	2.23
	7,000~8,000만원 미만	147	0.97
	8,000~9,000만원 미만	75	0.5
	9,000~10,000만원 미만	44	0.29
	10,000만원 이상	57	0.38
가구원 수	1인	4,553	30.16

구분	내용	빈도	%
	2인	2,429	16.09
	3인	4,480	29.67
	4인	3,012	19.95
	5인 이상	624	4.13
혼인여부	미혼	12,823	85.0
	그 외	2,275	15.0
주관적 건강인식	매우 나쁨	79	0.52
	나쁨	1,060	7.02
	보통	4,910	32.52
	좋음	6,822	45.18
	매우 좋음	2,227	14.75
지역	수도권	5,029	33.31
	비수도권	10,069	66.69
N= 15,098			

2. 상관관계 분석

다음의 <표 3>은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은 연속 변수 간의 관계 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 우선 모든 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절대값 기준 0.7 미만으로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은 미래 실현 조건 격차($r = -0.170$, $p < 0.01$)와 유의한 부(-)의 상관을 보였으며, 내적 정치효능감($r = 0.068$, $p < 0.01$), 학력($r = 0.0278$, $p < 0.01$), 소득($r = 0.070$, $p < 0.01$), 주관적 건강인식($r = 0.364$, $p < 0.01$)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는 내적 정치효능감($r = -0.056$, $p < 0.01$) 및 주관적 건강인식($r = -0.115$, $p < 0.01$)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학력($r = -0.004$)과 소득($r = -0.001$)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내적 정치효능감은 학력($r = 0.054$, $p < 0.01$), 소득($r = 0.035$, $p < 0.01$), 주관적 건강인식($r = 0.037$, $p < 0.01$)과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 학력은 소득($r = 0.352$, $p < 0.01$)과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을 보인 반면, 주관적 건강인식($r = -0.036$, $p < 0.01$)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을 나타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	미래 실현 조건 격차	내적 정치효능감	학력	소득	주관적 건강인식
삶의 만족	6.68	0.02	1					
미래 실현 조건 격차	0.94	0.01	-0.170**	1				
내적 정치효능감	2.62	0.01	0.068**	-0.056**	1			
학력	2.61	0.00	0.028**	-0.004	0.054**	1		
소득	3.95	0.02	0.070**	-0.001	0.035**	0.352**	1	
주관적 건강인식	3.67	0.01	0.364**	-0.115**	0.037**	-0.036**	-0.011	1

**p < 0.01, * p < 0.05

3.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먼저 모형 1에 따르면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D)가 커질수록 삶의 만족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30^{***}$). 모형 2에서는 미래 실현 조건 격차(D)의 부정적 효과가 유지되는 가운데($\beta = -0.128^{***}$), 내적 정치효능감(P)은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0.049^{***}$). 이어서 모형 3에서 상호작용항(D×P)이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beta = -0.024^{***}$), 이를 통해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와 삶의 만족 간 관계를 조절함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항의 부(-)의 계수는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됨을 의미한다.

모형 3을 기준으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의 계수가 음(-)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0.089^{***}$). 혼인여부($\beta = -0.173^{***}$)와 지역($\beta = -0.074^{***}$) 역시 음(-)의 계수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beta = -0.074^{***}$). 반면 청년 연간 개인소득($\beta = 0.079^{***}$), 가구원 수($\beta = 0.045^{***}$), 주관적 건강인식($\beta = 0.357^{***}$)은 모두 정(+)의 계수로 유의하게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건강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β	S.E.	t	β	S.E.	t	β	S.E.	t
독립 변수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D)	-0.130***	0.007	-17.39	-0.128***	0.007	-17.06	-0.128***	0.007	-17.06
조절 변수	내적 정치효능감(P)				0.049***	0.007	6.53	0.050***	0.007	6.63
상호 작용항	D×P							-0.024***	0.007	-3.4
통제 변수	성별 (ref: 여성)	-0.085***	0.015	-5.52	-0.089***	0.015	-5.78	-0.089***	0.015	-5.8
	학력	0.007	0.015	0.51	0.002	0.015	0.16	0.003	0.015	0.19
	청년 연간 개인소득	0.080***	0.009	9.37	0.079***	0.009	9.27	0.079***	0.009	9.28
	가구원 수	0.046***	0.008	5.78	0.045***	0.008	5.67	0.045***	0.008	5.66
	혼인여부 (ref: 그 외)	-0.170***	0.022	-7.86	-0.173***	0.022	-8.02	-0.173***	0.022	-8
	주관적 건강인식	0.358***	0.008	47.42	0.357***	0.008	47.3	0.357***	0.008	47.24
	지역 (ref: 비수도권)	-0.070***	0.016	-4.43	-0.074***	0.016	-4.67	-0.074***	0.016	-4.69
모형적합도		F: 371.54*** R^2 : 0.1646 Adj- R^2 : 0.1641			F: 335.91*** R^2 : 0.1669 Adj- R^2 : 0.1664			F: 303.69*** R^2 : 0.1676 Adj- R^2 : 0.1670		

***p < 0.001 **p < 0.01, * p < 0.05

해당 영향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주목되는 결과 중 하나는 주관적 건강인식이다. 관련하여 이윤진 외(2013)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이나 고용 상태와 같은 객관적 조건만큼이나 강력하며,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유능감과 직결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할 때 청년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재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모형 적합도는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 3에서 R^2 값이 소폭 증가하였으며($R^2 = 0.1676$, Adj- $R^2 = 0.1670$), F 통계량 또한 유의한 수준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확인되었다(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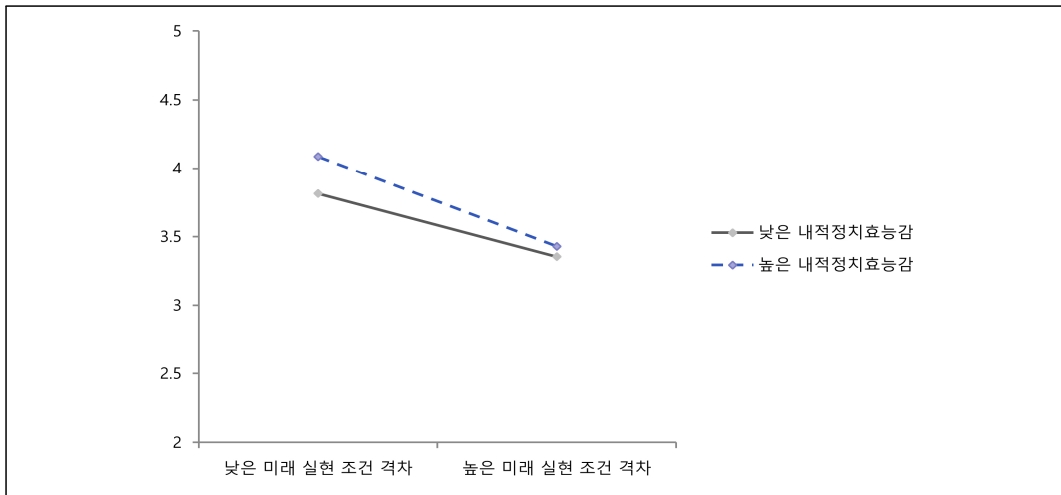
= 303.69***). 아울러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에 더해, 평균±1SD 기준의 단순기울기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표 5>와 같이 정리된다. 즉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내적 정치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단순기울기(±1SD) 결과

조절변수 수준 (내적 정치효능감)	독립변수의 단순기울기 b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	S.E.	t	p
낮음(-1SD)	-0.226	0.022	-10.07	<.001
평균(0)	-0.279	0.016	-17.06	<.001
높음(+1SD)	-0.331	0.022	-14.77	<.001

***p < 0.001 **p < 0.01, * p < 0.05

<그림 2> 조절효과 그래프



위의 <그림 2>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낮음/높음)에 따른 삶의 만족의 변화와, 해당 경로가 내적 정치효능감 수준(낮음/높음)으로부터 조절되는 양상을 그래프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낮을 때,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삶의 만족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격차가 커질수록 두 집단 모두 삶의 만족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그 감소 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높은 내적 정치효능감을 가진 청년들은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심화되면 삶의 만족 감소에 대한 민감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해당 결과를 통해 본 연구 가설1인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높을수록 청년들의 삶의 만족은 감소할 것이다.’와 연구 가설2인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청년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 증가분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상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4. 토론

오늘날 청년들은 정책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나,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망감, 불공정 인식, 좌절감 등이 누적되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윤민재·임정재, 2023). 특히 청년들이 청년지원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등 공공정책이 자신의 삶의 기회를 개선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뚜렷하게 표출하고 있다(김영미, 2018). 따라서 미래 실현 조건 격차는 곧 정책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낮은 체감을 나타내고 이는 연쇄적으로 삶을 인식하는 경로 및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주관적 안녕 수준을 진단함에 있어 함의를 제공한다. 최근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2021~2023년 우리나라 국민 평균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약 6.1점으로 OECD 38개국 중 33위, OECD 평균(6.7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삶의 만족도 자체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같은 기간 북유럽 국가들이 7점대 중후반을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사회가 체감하는 삶의 질이 타 국가와 격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에 한정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뚜렷하다. 예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정책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청년 본인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5점으로 전반적 삶의 평가 수준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데 그쳤다.

상기 통계지표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삶의 만족을 약화할 가능성은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정책 환경과 체감 성과의 괴리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를 넘어 삶의 전반적 평가에 핵심 경로로 작동한다(Bradley & Corwyn, 2004; Arens & Watermann, 2017; Lahat et al., 2025; 고평용·고명철, 2017)는 점을 확인한 결과이다. 보다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영향 경로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내적 정치효능감은 청년들이 정책 지원

의 부족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에 기반하면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정치효능감은 시민참여의 핵심 심리적 요인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볼 때 UN의 「Youth 2030」은 ‘참여(Engagement, participation and advocacy)’를 우선순위 영역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청년기본법」 제15조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명시한 바 있다. 더불어 2023년 3월에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서도 청년정책의 인식 확산과 정책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제도적 참여 통로를 넓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청년들이 참여를 통해 무언가를 실제로 바꿀 수 있다는 감각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관련하여 정지윤·박지원(2025)의 분석에서는, 청년의 주관적 계층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정치적 효능감을 통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도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년 정책참여 확대 논의는 제도 설계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를 유효한 정치적 행위자로 체감할 수 있도록 효능감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대학생들의 대선·총선 투표율 등 정치 참여 수준은 과거 세대의 청년기보다 오히려 높아졌음에도, 정치효능감 자체는 낮은 편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참여와 효능감 사이의 괴리가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청년의 정책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요구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더 큰 실망과 냉소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연쇄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의 삶의 만족과 참여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확대와 더불어 정책의 전 과정에서 청년 경험과 수요를 반영하는 실질적 효과성의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 마주하는 여러 구조적 제약과 이에 따른 주관적인 삶에 대한 평가가 정책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계층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삶의 조건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따른 삶의 만족 연구는 다수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이들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경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높아질수록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년이 인식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중요도 대비 충족도가 낮을수록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나타나며 이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내적 정치효능감 자체는 삶의 만족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주목되는 결과는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이다.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격차가 심화될수록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삶의 만족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년들의 경우,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를 보다 뚜렷한 상실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청년 삶의 만족 연구에 있어 다음의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기존 청년 정책 연구가 주로 정책 성과나 제도적 만족도 평가에 국한되었던 것을 넘어, 본 연구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내적 정치효능감이 삶의 만족을 일방적으로 증진시키는 보호 요인이라기보다, 정책 환경이 기대에 부응할 때 삶의 만족을 견인하는 조건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효능감이 낮은 경우 청년들이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좌절과 체념으로 내면화하여 삶의 만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정지윤·박지원, 2025). 즉 정책 환경이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할 때 높은 내적 정치효능감은 삶의 만족을 강화하는 보호 및 증진 요인으로 기능한다. 반면에 격차가 심화될 경우, 내적 정치효능감은 오히려 상실감과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정책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를 넘어, 청년이 기대하는 지원 수준과 실제 제공되는 정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중점화하여 세부적인 과제로 이루어진다. 해당 정책은 현실적 맥락에서 청년들의 다차원적인 행정수요를 담고 있으며 특히 세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다양한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정책 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와 실제 정책 성과 사이에는 여전히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³⁾ 이는 청년들이 정책을 통해 삶의 조건 개선을 강하게 기대하면서도, 실제 체감되는 정책 성과는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청년들의 정책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일자리와 주거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일자리 영역을 살펴보면, 청년 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2022년 46.6%로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2025년에는 다시 44.3%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쉬었음 청년'이 41만 1,000명으로 기록되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⁴⁾ 이러한 수치에 기반할 때 청년 고용정책이 고용 규모 확대라는 양적 지표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일지라도 실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주요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청년의 장기적 고용 안정이나 경력 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 역시 지적되고 있다(정동열·김강호, 2025). 이러한 점에서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기 취업자 수 증가와 같은 양적 성과 중심 평가를 넘어 청년 고용의 질을 반영한 정책 성과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거 영역에서도 정책 공급 확대와 청년 체감 간의 괴리가 확인된다. 예컨대 청년의 실질적 주거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소형 주택 중심의 공급 구조는 현행 분양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⁵⁾ 아울러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가보유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청년 자가점유율은 12.2%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역시 증가함이 보고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⁶⁾ 그 외에도 청년 대상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 중심 구조와 까다로운 소득 기준, 복잡한 신청 절차 및 청년 맞춤형 홍보 부재 등으로 인해 정책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어 왔다(김지영·정문기, 2025). 따라서 향후 청년 주거정책은 청년층의 실제 주거 수요와 생활조건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청년이 인식하는 정부 정책 지원의 충분성을

3) 청년재단의 「2025 청년정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청년정책 방향과 청년이 기대하는 청년정책 간의 간극'에 대해 10점 만점 가운데 평균 6.3점으로 기록되었다.

4) 조선일보.(2026.03.23). "지난달 실업자 121만명 역대 최대...청년 쉬었음 인구는 22년만에 최대".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1/14/3MOKOBBHNZEU3AWM4H6HCTOIII/

5) 한경.(2023.03.08.). "공공임대 위주, 기준 중구난방...청년도 외면하는 '청년 주거복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30861521>

6) 국민일보.(2025.11.17). "자가 비중 증가, 청년·신혼부부 자가 거주 감소"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3284562>

제고하고 정책 기대와 현실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만족과 정책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둘째, 오늘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청년참여기구 등 다양한 청년 참여구조가 마련된 상황에서, 청년을 형식적으로 위촉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제안한 의제가 실제 정책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의 내적 정치효능감은 삶의 만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청년 참여를 높이는 구호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질적 반영 및 가시적 변화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서는 정부 221개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⁷⁾ 이는 역설적으로 그간 청년의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 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제가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미반영된 제안은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 등 세부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효능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조절회귀분석의 모형 확장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내적 정치효능감 및 상호작용항이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일정한 조건부 의미를 지니더라도, 그 실질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는 정책 지원의 중요도와 충족도 간 차이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차이 점수 방식은 두 변수의 척도 단위와 측정 정밀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며, 두 원점수의 측정오차가 누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와 충족도 문항이 동일한 척도와 문항 구조를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중요도와 충족도를 별도로 활용하거나 혹은 잠재변수 등을 통해 측정 타당도를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활용한 변수의 내생성 및 누락변수 편이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겠다. 향후에는 패널 데이터 등을 통해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잠재적 누락변수(예: 정책 인지도, 정부 신뢰 등)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지표는 청년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가용 데이터의 한계임을 밝힌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자리, 주거, 돌봄, 정신건강 등 청년 삶의 만족과 직결된 정책 영역별 지표를 구축하여, 분야 간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한계들이 반영되어 수행되길 희망한다.

7) 복지로.(2025.12.26.).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9114_1114.html

【참고문헌】

- 강시은·한창근. (2018). 청년 가구주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연구」, 49(4): 195-220.
- 고광용·고명철. (2017). 미국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지역사회 삶의 질 간 상관성 분석: Peterson의 정책유형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2): 27-55.
- 권준이·은재호. (2021). 신뢰와 정치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4): 79-112.
- 김동욱·서정욱. (2021). 정책 기대감과 정책효능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283-309.
- 김민석·강민규. (2023). 개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수도권 청년유출 영향 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36(2): 47-66.
- 김민수. (2023). 청년고용정책과 청년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취업성공패키지 수혜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4(1): 25-40.
- 김보름·김민수. (2022). 청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에 관한 연구-성남시 청년배당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9(2): 71-99.
- 김영미. (2018). 한국 2030 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386-396.
- 김유현. (2021).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5(2): 337-367.
- 김이선. (2024). 청년의 생애 전략으로서의 지역 간 모빌리티: 청년들의 이주 의향 분석. 「지역사회학」, 25(3): 5-32.
- 김재우. (2018). 전라북도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가구소득 효과에 대한 동네환경, 사회관계, 사회활동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9(3): 5-48.
- 김지영·정문기. (2025).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불안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요의 탐색.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267-295.
- 류태건. (2011).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 「21세기정치학회보」, 21(3): 383-416.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변금선·김기현.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85.
- 오세일·고태경·전승봉. (2019). 청년세대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88-120.

- 윤민재·임정재. (2023). 한국사회의 공정성 인식과 행복: 세대 간 차별적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3): 93-118.
- 이성심. (2023).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청년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탐색. 「산업융합연구」, 21(7): 9-17.
- 이윤진·신혜리·이민아. (2013). 은퇴자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노후준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3): 35-59.
- 임태경. (2023).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7(2): 147-168.
- 정동열·김강호.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44(1): 53-73.
- 정지윤·박지원. (2025). 청년의 주관적 계층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6): 646-655.
- 최아영. (2022).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 매개효과 검증. 「한국보건사회연구」, 42(4): 326-346.
- 최윤희·김선미·임은효. (2025). 청년이 인식하는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5(3): 448-474.
- 홍상우·김동욱·김화연. (2023). 청년의 정치효능감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3(1): 1-32.
- 국가데이터처. 「청년 삶의 질 2025」. (<https://mods.go.kr/board.es?mid=a90106000000&bid=12316>)
- 국민일보.(2025.11.17). “자가 비중 증가, 청년·신혼부부 자가 거주 감소”.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3284562>)
- 문화체육관광부. (2024.11.29.). “청년정책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354>)
- 복지로.(2025.12.26.).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9114_1114.html)
- 엠브레인.(2019. 07.). 「청년세대 및 청년 복지정책 관련 인식 조사」.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822&code=0404&trendType=CKOREA>)
- 조선일보.(2026.03.23). “지난달 실업자 121만명 역대 최대...청년 쉬었음 인구는 22년만에 최대”.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1/14/3MOKOBB)

- HNZEU3AWM4H6HCTOIII/)
- 청년재단. (2025.09.25.). “2025 청년정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https://kyf.or.kr/user/board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349&nttNo=9436)
- 청년재단. (2025.09.25.). “청년정책·이슈 톨아보기”. (https://kyf.or.kr/user/board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450&nttNo=712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12.).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https://www.kihasa.re.kr/library/10110/contents/5161667>)
- 한경.(2023.03.08.). “공공임대 위주, 기준 중구난방…청년도 외면하는 ‘청년 주거복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30861521>)
- OECD.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https://www.oecd.org>)
- UN. 「Youth 2030」. (<https://www.un.org/youthaffairs/en/youth2030/about>)
- Arens, A. K. and Watermann, R. (2017). Political efficacy in adolescence: Development, gender differences, and outcome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53(5): 933.
- Bradley, R. H. and Corwyn, R. F. (2004). “Family Process” Investments That Matter for Child Well-Being.
- Campbell, A., Gurin, G. and Miller, W. (1954). *The voter decides*. Row Peterson: Evanstone.
- Craig, S. C., Niemi, R. G., and Silver, G. E.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12(3): 289-314.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and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He, L., Wang, K., Liu, T., Li, T., and Zhu, B. (2022). Does political participation help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urban residents: Empirical evidence from China. *Plos one*, 17(10): e0273525.
- Lahat, L., Sharony, C., Van-Dam, G., and Sharon, N. (202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Social Service Q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 347-413.
- Reichert, F. (2016). How internal political efficacy translates political knowledge into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Germany.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2(2): 221.
- Rico, G., Guinjoan, M., and Anduiza, E. (2020). Empowered and enraged: Political efficacy, anger and support for populism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9(4): 797-816.

Sohl. (2014). *Youths' Political Efficacy: Sources, Effects and Potentials for Political Equality*.

Suldo, S. M. and Huebner, E. S. (2006). Is extremely high life satisfaction during adolescence advantageo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2): 179-203.

Valentino, N. A., Gregorowicz, K., & Groenendyk, E. W. (2009). Efficacy, emotions and the habit of participation. *Political behavior*, 31(3): 307-330.

Whiteley, P., Clarke, H. D., Sanders, D., & Stewart, M. C. (2010). Government performa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ontemporary Britain. *The journal of politics*, 72(3): 733-746.

김 지 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및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고(2023) 현재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및 경기연구원 인구사회연구실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청년정책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가족친화 제도 활용에 대한 불이익 인식이 여성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25, 단독저자),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불안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요의 탐색”(2025, 1저자),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상 비참여 집단에 대한 탐색: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2024, 1저자) 등이 있다(charlet318@skku.edu).